

GT
GLOBAL TECH KOREA Industrial Technology & Market Review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아세안·인도 산업·에너지 동향
(10월 4주 주요 News Clipping)





▶ CONTENTS

I. 에너지 동향

1. 필리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에너지 현물시장 우선권 제공 (10.7)
2. 라오스와 한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 협력 (10.13)

II. 산업 동향

1. 베트남, 수입 의존도 감축을 위한 과학기술 시장 개선 (10.5)
2. 필리핀, 광산업을 경제동인으로 국가 경제회복 추진 (10.11)

III. FDI 및 협력 동향

1. 말레이시아 CPTPP 비준 (10.5)
2. 인도네시아 PT PP업체와 한국 기업, 누산타라에서 스마트시티 개발 (10.8)

I

에너지 동향

1. 필리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에너지 현물시장 우선권 제공 (10.7)

- ❖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전력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중앙 집중식 장소인 도매 전기 현물 시장 (WESM)에 있는 모든 재생 에너지 발전소에 우선권을 제공하도록 지시
- ❖ 제2022-10-0031호의 에너지부 시행령에 따라 재생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발전소는 WESM에서 "필수 배전" 또는 "우선 배전"으로 분류됨
 - 지열·수력발전소가 현물시장에서 입찰순서에 대해 발전장치 우선 목록에 포함을 의미
- ❖ Raphael Lotilla 에너지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이 필리핀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을 더욱 촉진하고 석탄과 같은 수입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시킬 것이라고 표명
 - 필리핀 정부는 에너지 조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5%, 2040년까지 50%까지로 증가시킬 예정
- ❖ 현재까지 DOE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작년 기준 58.48%로 에너지 조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재생 에너지는 22.40%를 차지한 상황
- ❖ 제2015-03-001호의 에너지부 시행령에 따라, 생성이 가능할 때마다 배전 일정에 따라 풍력, 태양열, 유입식 수력과 해양 에너지 발전소를 포함하여 적격 및 등록된 간헐적 재생 에너지 기반 발전소에 WESM에서 "필수 배전" 우선 촉진

- ❖ 한편, 우선 배전은 2008년 재생 에너지법의 섹션 7에 따른 발전 차액지원제도에 따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우선권을 부여
- ❖ 또한 동 시행령이 시장 운영자, WESM 거버넌스 부서, 시스템 운영자와 유통 업체가 WESM 규칙과 매뉴얼을 필요한 조정을 통해 발전 장치의 배전 우선권 부여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정 및 배전을 보장하도록 지시

2. 라오스와 한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 협력 (10.13)

- ❖ 대한민국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EVEDI), 광주테크노파크(GJTP), 전남테크노파크(JNTP), 한국라오스문화유산교류협회(KLICEA)의 국제문화산업협회(ICIA)가 라오스 정부와 협력하여 라오스의 에너지 분야를 개발할 예정
- ❖ 4개의 기관은 한국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기반을 둔 기업의 라오스 진출을 통한 기술 이전, 상업화 및 마케팅 프로젝트에 대해 라오스 기관으로서 상호 관심 분야를 모색하고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
- ❖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자와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의 고위급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GJTP 조동민 부장, JNTP 김동욱 센터장, 한국전력 공사의 계열사인 EVEDI 임철원 원장, KLICEA의 ICIA의 Sam Maeng 회장이 동 협력 합의를 체결
 -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연구 프로젝트와 협력 프로그램의 내용에 공동 참여를 통해 합의된 협력 분야를 진행하며, 신기술과 기술 이전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촉진
 - 공동기술회의, 심포지엄, 강연회, 기술워크숍, 전시회 등을 통해 사업화 공동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사업이 진행할 예정
- ❖ 라오스와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기존 변전소를 가스 절연 변전소로 업그레이드하고 건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는 중

II

산업 동향

1. 베트남, 수입 의존도 감축을 위한 과학기술 시장 개선 (10.5)

- ❖ 베트남 과학기술부 Huynh Thanh Dat 장관은 베트남이 수입 의존도 감축을 위해 3개의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시장을 개선하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 ❖ 핵심 해결책은 현지와 지역 플랫폼과 연결될 3개 지역에 3개의 기술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힘
- ❖ 과학기술부는 베트남의 과학기술 시장이 국내 공급원이 제한된 초기 단계에 있으며, 주로 연구소, 대학, 기술 인큐베이션 센터, 기업의 연구 개발과 해외 기술 수입 및 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
-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16%만이 베트남의 연구소와 대학을 과학 기술 제품의 공급업체로 간주
- ❖ 베트남 통계청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 기술, 장비 및 기계 구매에 약 40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2016년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부는 베트남 기업의 기술과 장비의 약 75%가 수입된다는 통계에 기반, 미국, 한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은 최근에 다소 증가하였지만 베트남은 중저기술을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고 밝힘
- ❖ 베트남 기업의 기술과 장비에 대한 수요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기술 이전 기업과 역량이 제한되어 고품질 기술의 공급에 접근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 과학기술부는 국가무역플랫폼을 구축해 과학기술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상품화하고, 과학기술 제품의 홍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
- ❖ 베트남 과학기술시장에 현재 기술이전촉진센터, 평가센터, 인큐베이터 등 800여 개의 중개기관이 운영되며, 또한 선진국의 기술을 우선으로 하여 세계의 선진기술 수입 가능한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
- ❖ 2030년까지 국가 과학 기술 시장 개발 프로그램은 하노이, 호치민시와 다낭에서 국가 기술 거래 플랫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2. 필리핀, 광산업을 경제동인으로 국가 경제회복 추진 (10.11)

- ❖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DENR)가 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광산업을 국가 경제 회복의 원천 중 하나로 검토 중
- ❖ Toni Loyzaga 장관은 DENR이 재무부와 타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국내 광산 활동의 다양한 재정적 측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힘
- ❖ Loyzaga장관에 따르면 광산 업체와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는 정책의 지속적인 변화와 광산 원천 자원의 현지 처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 ❖ 필리핀은 무역 산업부의 "Make It Happen in the Philippines" 투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니켈, 코발트, 구리와 같은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를 미국 투자자들에게 제안하는 중
- ❖ DENR은 필리핀이 약 PHP 1조 4천억의 금 매장량과 추가로 PHP 7조상당의 비금속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1. 말레이시아 CPTPP 비준 (10.5)

- ❖ 말레이시아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공식 비준하였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2년 9월 30일 CPTPP 수탁자인 뉴질랜드에 협정 비준서를 제출하여 발표한다고 국제통상산업부(MITI)가 선언
- ❖ 10월 5일 MITI는 이번 비준 승인이 정부의 수년간의 상세한 논의, 자문과 신중한 평가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힘
- ❖ MITI는 CPTPP가 기존 자유 무역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캐나다, 멕시코, 페루와 같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진출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더욱 다양한 고품질 원자재를 제공하며 말레이시아를 투자처로 보다 국가 매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힘
- ❖ CPTPP는 또한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광학·과학 장비 및 의료 기기와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지역 산업의 역량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지원과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
- ❖ MITI는 CPTPP에 따라 2033년 1월 1일까지 모든 CPTPP 국가에 대한 말레이시아 수출품의 거의 100%가 면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현재 15%~30%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주요 말레이시아 수출품의 세율에 대한 높은 관세는 즉시 철폐될 계획
- ❖ 가공 식품·음료 산업에서 말레이시아 수출업체들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과 페루로

사업을 확장할 전망

- ❖ MITI는 말레이시아 기업이 CPTPP 국가들의 정부 조달(GP) 시장에 말레이시아가 적용한 엄격한 조건과 비교하여 보다 훨씬 쉬운 조건으로 즉시 접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CPTPP GP시장은 1조5000억 달러로 추산되며 특히 일본(8387억 달러), 캐나다(2330억 달러), 호주(2276억 달러) 등으로 추산됨
- ❖ CPTPP는 전문 자격, 허가 또는 등록의 상호 인정을 포함하여 서비스 수출을 더욱 촉진하여 CPTPP 국가 간의 규제 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2. 인도네시아, LG CNS와 누산타라 스마트시티 개발 합의 (10.8)

- ❖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 투자 기업인 PT PP(Persero)가 한국 LG CNS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인 동칼리만탄의 누산타라(IKN)에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개발하기로 합의
- ❖ PT PP(Persero)의 건축공사 부장인 Anton Satyo Hendriatmo는 두 회사 간의 협력이 누산타라에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과 정보 기술 분야 간의 최고의 시너지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 기술 도입을 통해 도시의 현대화를 주도할 것이며, 정부는 누산타라에서 유사한 개념을 추진하는 타 수도들과 동등하게 개발하기 위해 지능형 도시 개념 구축 계획
- ❖ 또한, 누산타라 개발은 자원의 품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능형 도시 개념을 개발하는 인도네시아의 기타 도시에 대한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
- ❖ 10월 7일(금) PT PP 자카르타 본사에서 스마트시티 개발 양해각서 체결식 진행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아세안·인도 산업에너지 동향 News Clipping (10월4주)

발행일 | 2022년 11월

작성자 | 베트남 거점 이재민 소장 (jmlee@kiat.or.kr)

문의처 | KIAT 국제협력기획팀 (jskim11@kiat.or.kr)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본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자료는 GT온라인 홈페이지(www.gtonline.or.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GT Industrial Technology & Market Review
 GLOBAL TECH KOREA
글로벌 산업기술·시장동향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국 워싱턴 D.C. 거점
 김은정 소장



KIAT
 유럽 벨기에 거점
 강주석 소장



KIAT
 베트남 하노이 거점
 이재민 소장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국 실리콘밸리 거점
 박성환 소장



KEIT
 유럽 독일 거점
 박효준 소장



KORIL(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유럽 이스라엘 거점
 최수명 소장